

전국인대 주아파대표, 온실하우스에서 ‘행복의 꽃’ 재배

길림성 유수시 궁봉진에 들어서면 줄을 지어 들어선 온실하우스가 장관이다. 13호촌 화훼묘목재배기지 온실하우스에서는 꽃배추들이 물기를 머금고 푸르싱싱하게 한창 자람새를 자랑하고 있다. 온실하우스에서 전국인대 대표인 주아파는 일꾼들을 거느리고 시장에 출하할 남새를 따고 포장하느라 한창이다.

“요즘은 온실하우스에서 재배한 남새가 시장에 나갈 시기다. 꽃배추는 시장가격으로 한근에 10원 좌우 하는데 한동의 온실하우스에서 2만원 가까이 수입을 낼 수 있다.” 주아파의 온실하우스는 일년 사계절 재배하고 있는데 꽃배추를 다 팔면 이제 곧 화훼를 심게 된다.

“화훼기지가 있는 후부터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집에서 해마다 2만원 좌우 벌 수 있게 되었다.” 촌민 호효춘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곳에서 풀을 뽑고 물을 주는 등 일을 하면서 집을

떠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어서 좋다고 덧붙였다.

촌민들은 주아파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녀는 한 평범한 농촌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신근한 로동을 통해 화훼묘목재배기지를 세우고 일년에 7천그루의 화훼를 팔던 데로부터 지금은 50여만그루 이상의 화훼를 파는, 당지에서 소문난 치부농수로 성장했다. 2004년 주아파는 우연한 기회에 화훼를 접하게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자그마한 온실하우스에서 화훼를 키우며 재배와 판매 경험을 쌓았다.

주아파는 판로를 열기 위하여 사처에 연계를 달기도 하고 북방에서 키우기 적합한 실내 화분과 실의 화초를 사진책자로 만들어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선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3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 그녀의 화훼 판로는 점차적으로 넓혀져갔으며 화훼시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혔다.

2011년 주아파는 예경원화훼묘목재배기지를 정식 설립하고 선진적인 재배 기술과 경험을 부단히 학습

하면서 규모를 확대하여 10동에 달하는 현대식 화훼와 포도 온실하우스를 건설하였다. 주변의 재배호들은 본분히 주아파를 본받아 자신의 온실하우스를 현대식 일광온실하우스로 개조했다.

2018년 당지 정부의 부촉에 힘입어 주아파는 또 10동의 일광온실하우스를 짓고 참외와 포도 등을 재배했다. 그녀는 자신의 온실하우스를 통해 100여명에 달하는 당지 일꾼들의 취업을 해결했는데 계절에 따라 일하는 일꾼은 150명을 넘는다.

“나의 오늘과 같은 성적은 마을 사람들의 지지와 갈라놓을 수 없다. 촌민들을 거느리고 함께 치부하는 것이 나의 분투목표이다.” 주아파는 치부의 길에서 촌민들을 잊지 않고 해마다 촌민들을 대상으로 화훼와 남새, 포도 재배 강습을 조직하여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지도와 도움으로 160여호에 달하는 촌민들이 온실하우스 남새를 재배하고 있으며 12호의 촌

민들이 화훼묘목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들 가정의 일년 수입은 4만원을 넘는다. 전통적인 기지의 판매 방식에서 ‘기지+농호’에 이르기까지 주아파의 재배기지는 이미 당지 온실하우스경제의 부화기로 되었다.

2023년 주아파는 전국인대 대표로 당선되었다. ‘천하 제1곡창’으로 불리는 유수에서 인민대회당까지, 한 농민으로부터 고급농예사로 그리고 전국인대 대표로 되기까지... 주아파는 무한한 영예와 함께 두 어깨의 중임을 잘 알고 있다.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 주아파가 제출한 건의는 관련 부문의 담복과 함께 구체적인 약속을 보였다.

주아파는 이번엔 북경에 가서 참가하게 될 대회에서 역시 ‘3농’과 관련된 건의를 제출하려고 준비중이다. “나는 적극적인 건언헌책을 통해 인대대표로서의 신성한 직책을 리행하고 실제 행동으로 향촌 진흥을 위하여 공헌하려 한다.” 고 주아파는 말했다.

/ 길림일보

리수현 군자란, 온라인 판매 통해 ‘꽃피다’



길림성 리수현 소관진의 군자란하우스재배기지에 들어서면 수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초록색 군자란들이 화훼재배농들의 정성어린 보살핌 속에 무럭무럭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최근 몇년 동안 이곳에서는 왕년의 전통 판매 방식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군자란을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소관진 정영군자란농민전업합작사 군자란재배하우스에서 재배호들은 휴대폰을 켜놓고 라이브 판매와 함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도 한창 군자란을 팔기에 여념이 없다. 이곳 군자란 재배호들은 현대과학기술의 수단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화훼 판매 방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정영군자란농민전업합작사의 책임자 리춘정은 “우리 합작사에는 현재 자동화 화훼 유리온실이 4동 있

으며 10만포기의 군자란을 재배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강소의 화훼 시장과 협력하여 오프라인을 통한 판매외에도 ‘콰이썬우’, ‘떠우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라이브 판매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판매하는 군자란은 10만포기, 판매액은 200만원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소관진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군자란 판매 방식은 이미 상시화됐다. 당지 정부 사업일꾼은 앞으로 ‘전자상거래+농산물’을 통한 향촌 진흥의 길을 건지해 군자란재배합작사를 포함한 당지 특색산업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 방식을 적극 지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라이브 판매 기술 강습반을 조직하고 전자상거래 인재를 양성하는 등 농민들의 창업과 취업 경로를 넓혀나가고 수입을 증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길림일보

전국정협 리화약위원, 흑토지에 깊은 정감 담아

끝없이 펼쳐진 광야는 세세대대 동북인들을 심취시키고 세차게 흐르는 송화강은 수천년 풍상과 호기로 고동친다. 전국정협 위원 리화약은 희망과 꿈으로 가득찬 흑토지에 깊은 정감을 담고 있다.

연속 2기째 전국정협 위원으로 당선된 리화약은 백산송수(白山松水)에 뿌리 박고 흑토지 곳곳을 방문 조사하면서 직무 리행의 발걸음을 확고히 했다. 그는 지난 몇년간 도합 17부의 제안을 내놓았다. 중이에 끼여진 제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리화약은 다년간 일선에 심입하여 문제들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제안자료를 형

성해왔다.

농업생산에 대한 깊은 인식과 조사연구에 근거한 그의 많은 의견과 제안은 국가 관련 부문의 깊은 중시를 받았다. 2018년, 리화약이 내놓은 〈우리 나라 자연보호구 관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진일보 정리하여 자연보호구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할 데 관한 제안〉은 전국정협 중점제안, 13기 전국정협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다.

또 〈동북 흑토지 수도류실 관리 투자를 늘일 데 관한 제안〉은 전국정협에서 진행한 흑토지 보호 감독성 조사연구 (2021년부터 연속 5년

간 진행)가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데 추진 역할을 하였다. 2023년 말, 국가 신규 만억국채(万亿国债) 중 흑토지 수도류실 관리 투자를 98억 3,000만원 증가했다. 작년에 내놓은 〈성급 경작지보호책임보상제도 수립에 관한 제안〉은 국가 관련부, 위원회의 적극적인 회답을 받았는바 관련 국가 장려 제도의 확립을 추동하기도 하였다.

직무를 리행하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전국 량회에 참가할 때

마다 저는 만단의 준비를 하지요.” 이번에도 리화약은 충분한 준비를 하였다. 그의 책상에는 흑토지보호, 자연보호, 생태건설 등 대량의 조사연구 자료가 쌓여있다. 그는 사회열점 문제에 립각하여 복수남조공정 추진, 농업생산공간의 안정적인 확장, 유사두(油蔆豆) 산업의 발전 추진을 둘러싸고 제안할 것이며 실제 행동으로 전국정협 위원으로서의 책임과 담당을 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길림일보

현대화 꿈 구축하고 새 청사진 그리자

농업발전은행, 지난해 농촌 건설에 4,880 억원 대출 제공



‘1천개 시범촌, 1만개 촌 정비’ 프로젝트 추진으로 거주환경이 크게 개선된 절강성 호주시 팔리면진.

중국농업발전은행은 ‘1천개 시범촌, 1만개 촌 정비’ 프로젝트(이하 ‘천만 프로젝트’) 중점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 지원을 통해 ‘천만 프로젝트’의 효과적 루트를 발굴하고 복제 가능한 경험과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농업발전은행 관계자는 농촌 거주환경 정비, 생태보호·정비 및 농업·농촌 녹색·저탄소 발전, 농촌 특산물 판매, 농경문화 전승, 농촌내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보급, 디지털 농촌 건설 등을 지원해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탬 방침이라고 전했다.

농업발전은행은 지난해 ‘천만 프로젝트’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거주 및 생업 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농촌 건설을 위해 4,880억원의 대출을 제공했다.

/ 신화사

종자산업과 녹색농업 발전 적극적인 성과

2023년 우리 나라 종자산업은 유전물질자원 보호 및 리용, 혁신과 난관공략, 우수기업 지원, 기지 승격, 시장 정화 등 5대 행동을 전면 추진하여 일련의 상징적인 성과와 단계적인 진전을 이룩했다. 전국 농업유전물질자원 보편조사에서 53만부의 종자질자원을 새로 수집하고 대과키위 등 희귀 및 멸종위기에 처한 자원을 상대로 구급성 보호를 했으며 자원의 밀전을 초보적으로 파악하여 보장해야 할 모든 것을 보장하였다. 알카리성에 견디는 일련의 밀품종과 짧은 생육기의 겨울철 유채품종을 초보적으로 재배했으며 국산 흰털 고기닭 품종의 시장 점유율을 10% 포인트 향상시켜 25% 이상에 도달시킨 동시에 처음으로 수출했다. 또한 자주적으로 사육한 고기소 품종 하서우 등 신품종 응용 속도를 다그쳤다. 216개 작물종자기지현, 300개 가축, 가금 종자농장(소), 91개 수산물 우량종자로 구성된 우량종자 번식 ‘국가대표팀’을 건전히 하여 국가급 기지의 종자 공급 보장 능력을 75%로 높였다.

농업산지의 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효익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농작물의 병충해의 녹색 예방통제 피복률이 54.1%에 도달했다. ‘가축, 가금 분변 오염 자원의 리용의 옹근 추진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219개 녹색재배, 양식순환 시범현을 구축하고 가축, 가금 분변 오염 종합리용률을 78.3%에 도달시켰다. 재배와 양식의 순환 성과가 뚜렷했는데 곡식줄기 종합리용 중점현을 건설하여 종합리용률을 88% 이상에 도달시켰다. 녹색 량질의 농산물 공급이 뚜렷이 증가되어 인증을 거친 녹색, 유기 농산물이 6만 8,000개 이상에 달하고 연간 전국 농산물 감시측정 종합격률이 97.8%에 달했다. 루게로 10억 무를 넘는 고표준 농지를 건설함으로써 자연재해를 막고 량곡 증산 품작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흑토지 보호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1억무 년도 보호 임무를 완성했다.

/ 신화넷

做中国最好的粉条

传统手工工艺制作

三大类产品：粉条、粉丝、宽粉

20多种包装规格，满足不同客户的需求

关东粉王

GUANDONG VERMICELLI

免费咨询热线

400-823-5550

企业公众号